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로서 앞장섬

(주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앞장서서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함

성경: 고전 12:27, 엡 4:12, 16, 아 6:13, 7:1-13

- I.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회복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일, 곧 몸의 일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고전 15:58, 16:10, 엡 4:12.
- II.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알아야 한다—엡 3:17상, 빌 2:13.
 - A.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 곧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넣는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갈 4:19, 엡 3:17상, 4:16.
 - B. 하나님의 일에서의 원칙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고, 사람들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길을 얻는 것이다—행 9:15, 13:1-2.
 1. 올바른 우선순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엡 2:10, 빌 2:13.
 2.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일꾼들이어서는 안 되며, 주님의 작품이어야 한다—엡 2:10.
 - C.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을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사람이 틀렸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로 무언가를 건축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로 인해 더 많은 것을 허물어뜨릴 것이다—마 7:17-18.
- III.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A.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그분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마 15:13, 고전 8:6.
 - B. 하나님의 일의 추진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후 3:5, 빌 3:10.
 - C.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요 7:17-18, 엡 3:21.
 - D.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이 시작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수행해서는 안 되며, 어떤 일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 IV.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생활과 일과 움직임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막 1:14-45.
 - A. 주 예수님은 생활과 일과 움직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1. 주님은 그분의 생활과 일과 움직임이 모두 똑같으셨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든지 일하셨다.
 2. 주 예수님은 그분의 생활의 모든 방면이 똑같으셨다. 생활과 일이 다르지 않으셨다.
 - B. 주님의 생활이 곧 주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빌 1:20-21상.
- V.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완전히 성숙한 생명이자,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 즉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고 어떤 기회도 붙잡을 수 있는 생명으로 일해야 한다—요 14:6상, 행 27:22-25, 고후 6:1-13.

VI.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골 1:24.

VII.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할 자격을 가진 사람인 솔라미가 되어야 한다—아 6:13, 7:1-13.

A. 아가서 6장 13절에서 연인은 변화의 다양한 단계들을 통과한 후에 솔라미, 곧 솔로몬의 복사판이 되었다.

1.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녀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솔로몬과 똑같다—창 2:20-23.

2.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되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후 3:18, 롬 8:29.

B.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솔라미는 솔로몬의 동역자가 될 자격을 갖춘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연인들이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전 15:58, 16:10, 엡 4:12.

C. 아가서 7장 9절 상반절부터 13절까지는 연인이 사랑하는 분이신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는 것을 제시한다.

1.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고전 3:9상, 고후 6:1상.

2.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전 6:17, 요 15:4-5, 빌 1:21상.

3.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한다—엡 4:13-14.

a.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요구된다—고전 2:6, 골 1:28.

b. 성숙은 우리가 생명의 충만을 얻을 때까지 신성한 생명이 거듭해서 우리 안에 분배되도록 하는 문제이다—요 10:10하, 고후 5:4하.

4.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은 반드시 그분의 몸을 위해야 한다—엡 4:4, 16.

a. 몸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과 일을 지배하는 법이다—엡 1:22-23, 고전 12:4-6, 12-13, 27.

b.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다—엡 3:16-21, 4:4-6, 12, 16.

c.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이다—고전 15:58, 16:10, 엡 4:12.

d. 모든 동역자들은 유일한 한 몸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의 일을 해야 한다. 일의 출발점은 몸의 하나이다—엡 4:4, 고전 16:10.

e. 아가서 7장 1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녀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저곳에서 체류하며(동네에서 유숙하며) 온 세상(들판)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반드시 몸을 위해야 함을 가리킨다—엡 4:12.

- f.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하나를 볼 때마다 일의 하나를 볼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일에서 구출되어 몸의 일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제2집 제17권 307쪽)
- 5. 교회들(포도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녀가 사랑하는 분께 그녀의 사랑을 드린다—아 7:12.
 - a. 그녀는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그녀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한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드린다—막 12:30.
 - b. 여기서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과 첫째가는 행위의 관계를 본다—계 2:4-5:
 - (1) 첫째가는 행위는 첫째가는 사랑에서 나오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 (2) 우리가 주님께 대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분이신 주님과 함께 몸을 위해 일할 것이다—엡 3:19, 4:16.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그리스도의 몸의 결정화된 의미에 따라서 생활하고 일함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적이고 결정화된 의미는 삼일 하나님께서 선택되고 구속된 사람들과 함께 조성되시어 하나의 조성체, 조성된 한 실체가 되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이러한 결정화된 본질적 의미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수행할 길이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를 안다면, 무엇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의 하나에 관한 문제가 없다. 하나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몸에 속한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믿는 이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몸에 관한 것이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요 17:11하, 21) 믿는 이들은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 안에서와 거룩하신 아들 안에서와 거룩하신 삼일성 안에서만 이 하나를 가질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열망하시고 기도하신 하나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에서 말한 그 영의 하나와 부합된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이 몸은 하나의 조성체로서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로 조성된 한 실체임을 보아야 한다. 이 몸 안에만 하나의 실체가 있다. 진정한 하나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몸에 속한 것이다. 진정한 하나는 몸의 유기적인 하나이다. 그리고 지방적으로 이 하나는 ‘한마음 한뜻’이라고 불린다. 몸의 하나가 없이는 교회 안에 한마음 한뜻이 있을 수 없다.

니 형제님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몸을 알았다. 그의 일은 조금도 자기를 위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일도 없었다. 또한 그가 세운 교회 중에 한 곳도 자기 호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니 형제님은 선구자이며, 나는 따르는 사람이다. 주님께 감사한다. 그는 참으로 나에게 뛰어난 분이었으며, 이 분은 내가 여전히 오늘까지도 여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겠지만, 나는 대만에 있는 교회들을 내 호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니 형제님과 나는 자기의 일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주님의 회복의 일을 했

다.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주님의 회복의 일을 함

오늘 이상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니 형제님과 내가 자기 개인의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주님의 회복의 일을 했음을 분명히 알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니 형제님에게서 막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의 영향을 받기 바란다.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니 형제님에게 어떤 성취가 있었는가? 나에게 또한 무슨 성취가 있는가? 우리가 이룬 모든 일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여기에 남겨져 있다. 우리가 행한 일은 주님의 회복이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볼 수 있기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보아야 하고 이 이상에 대해 매우 분명해야 한다. 이러한 이상은 반드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이상 아래서 주님의 회복의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의 회복의 일은 주님의 경륜의 일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이다.

만일 어떤 지방 교회가 다른 지방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봉건 군주 아래 있는 요새인 것이다. 봉건 군주가 되어 요새를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수명이 길지 않다. 비록 니 형제님이 돌아가신 지 이미 이십여 년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사역이 여전히 여기에 남아서 교회들이 계속 전진하도록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본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몸을 보고 몸의 일을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든 개인 생활에서든, 모든 어려움은 다 몸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심지어 우리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도 몸을 모르기 때문이다. 몸을 안다면, 우리의 교회생활이 바뀔 뿐 아니라 아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변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울타리를 치는 일인지 아니면 주님의 회복인지는 나에게 달려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지방에서 일을 할 때, 단지 여러분의 집회소만 돌보고, 여러분의 지역 집회만 관심하고, 여러분의 지방 교회만 위하지는 않는가? 우리 가운데는 군주가 없으며, 오직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실 뿐이다. 그분은 몸의 머리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이다. 기독교 안에는 울타리가 가득하다. 천주교는 큰 울타리이고, 장로교와 침례교도 울타리이며, 모든 작은 자유 단체들도 작은 울타리들이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지방적인 하나가 아니라 몸의 하나, 곧 그 영의 하나임을 보아야 한다. 지방 교회는 매우 많지만 그 영은 하나이다. 몸 안에서 우리는 그 영의 하나를 지켜야 하며, 교회 안에서와 교회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이다. *(성경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 36-42쪽)*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리는 아가서에서 추구하는 이가 몇 가지 성취에 이르렀음을 보았다. 첫째로, 그녀는 자신을 위한 완전한 만족에 이르렀다. 그런 다음 면류관으로서 그녀는 주님을 만족하시게 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만족하게 하는 동산이 되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밖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고 또 우리는 다른 이의 필요도 돌아보고 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밖의 어떤 것도 요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인 몸의 건축과 성(城)의 건축의 성취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자신의 필요만을 돌보며, 보다 전진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돌본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일의 최

상의 목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표인 몸의 건축에 이를 수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건축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 최근 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몸의 생활과 몸의 사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몸이 무엇 인지를 참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몸은 건축물이자 재료들의 무더기가 아니다.

우리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도달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성취되지 못했다. 이것이 추구하는 이가 모든 것을 성취한 후에도 여전히 또 다른 단계가 남아 있는 이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곧 성의 건축인 몸의 건축을 관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만족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주님의 고난의 두 방면

몸의 건축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주님의 고난에는 두 방면이 있다. 하나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는 또 다른 방면이 있다. 곧 몸의 형성과 건축을 위한 주님의 고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중요한 주님의 고난의 이 방면을 전혀 모른다. 이런 이유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라고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했다. 구속을 위한 주님의 고난은 어떤 부족함도 없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구속을 위한 주님의 고난은 완성되었고 충분하다. 그러나 몸을 산출하고 형성하고 건축하기 위한 그분의 고난에는 큰 부족함이 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구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 없지만 몸의 건축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여러분을 존경할 것이며 여러분에 대해 좋게 말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더욱 전진한다면 여러분은 더욱 존경을 받을 것이다.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몸의 건축을 위한 필요를 보기 시작하고 이를 위해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대부분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기독교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주 예수님은 몸의 산출을 위해 이방 세상이 아닌 유대 종교의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셨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이방인들로부터 거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유대 종교로부터는 매우 많이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았다. 빌립보서 1장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 전파자들까지도 바울을 박해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바울이 몸의 건축을 위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정확히 동일하다. 만일 우리가 몸을 돌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단지 영적으로 되는 것과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만 추구한다면 모든 기독교는 우리에게 대해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초청하며 우리를 크게 이름이 나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유명한 설교자나 목사나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몸의 이상을 보고 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추구하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온 기독교는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아가서에서 추구하는 이가 동산이 되는 네 번째 성취에 이른 후에도 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성의 건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이 전진된 단계를 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분의 고난의 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구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몸의 건축을 위해 그분의 고난과 함께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몸을 위하여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해야 한다. (아가서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221-225쪽)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함

우리는 연인의 자격조건에 대한 묘사를 보았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볼 것이다(아 7:9하-13).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아 7:11). 이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그녀가 종파적인 사람이 아님을 가리킨다. 주님의 사역에서 우리 일을 열려 있게 하고 ‘우리 주머니’ 속에 넣지 않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일을 열려 있게 하기를 배워야 하며, 그럼으로써 다른 이들이 그곳에 와 머물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 머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한 일을 한 몸 안에 두는 것이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아 7:12). 그녀와 사랑하는 분은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들 안에서 다른 이들이 움이 돋고, 꽃술이 피지고, 꽃이 피도록 부지런히 수고하며,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분께 드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다른 이들이 많은 도움을 입을 것이다.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아 7:13). 그녀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할 때, 거기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그 향기를 발하는 상호간의 사랑(합환채로 상징됨—창 30:14)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결혼의 사랑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의 일터에는 각종 향기롭고 귀한 실과가 새 것, 묵은 것이 구비되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분을 위해 쌓아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누리실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 자신의 기쁨만을 관심한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향기가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일해야 한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숙한 생명을 요구한다.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성숙해야 하며 높은 진리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아가서는 진리를 강조하지 않으며, 진리는 오직 한 번만 언급되었다(‘아마나’는 ‘진리’를 의미함—4:8). 하지만 아가서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며,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이 그분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본다. 우리 주님은 솔로몬이시며 우리는 솔람미가 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사실상,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빌 1:21) 참된 솔람미

였다.

솔람미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일하며 모든 포도원을 돌본다(아 8:11). 이것은 우리의 일이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지 한 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방 교회들을 세우고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완전한 인식 안으로 이끌었던 바울의 일이다. (*아가서 라이프 스타디*, 66-69쪽)